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5. 11. 16(월)	
		작성 · 문의	일반행정정책관실 경정 김상형 (☎ 044-200-2085)
즉시 사용바랍니다.			

황교안 총리, 경찰병원 방문, 부상 경찰관과 의경 위문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1.16(월), 지난 토요일 대규모 불법·폭력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머리를 맞아 입원 중인 경찰관(정OO 경위, 男)과,
 - 훈련 등 공무수행 중에 안타까운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는 경찰관·의경 90여명을 위로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을 방문하였다.
- 황교안 국무총리는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“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부상을 입어 안타까운 마음이며, 조속히 완쾌하여 일선 치안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”고 격려하며
 - 병원관계자에게 “입원해 있는 경찰관과 의경들이 조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
 - 또한, “부상당한 경찰관 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부상당한 경찰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아울러, 집회시위를 통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고, 폭력 등 불법행위를 통해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잘못된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서,
 - 앞으로 “평화적인 집회·시위 문화가 정착”될 수 있도록,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.